

한국 노동운동사 돌아보기

# ‘항쟁과 승리의 서사’를 넘어

한국 노동운동사,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박준형,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을 중심으로

2026.1. 광주.

# 오늘의 주제

## 핵심 질문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라는 인식은 노동운동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 강의 목표

- 공식 역사 서술의 한계 인식
- 노동운동의 구조적 문제 이해
-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 공유

## 다를 내용

- 전노협 → 민주노총 전환
- 1996~97년 총파업의 신화와 현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전환의 한계
- 사회적 대화의 실패
- 문재인 정부 시기의 기회 상실
- 정치세력화의 좌절

# 왜 공식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 공식 역사의 서사

"피와 땀으로 새겨온 투쟁의 기록"

"정권과 자본의 거센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투쟁으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한 성과를 만들었다"

## 비판적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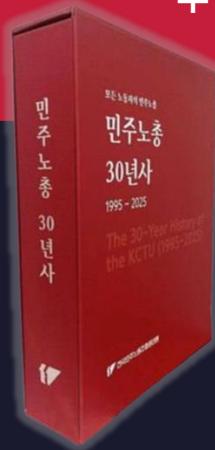
"노동운동은 전략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지난 20여 년 간 놓쳤다"

"현재 노동현실의 빛만 아니라 어둠도 노동운동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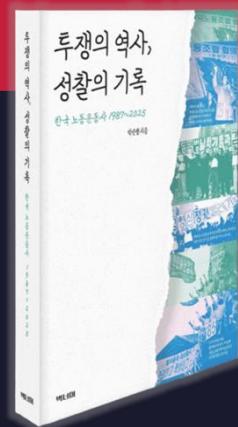
**"투쟁의 성과"가 아니라 "변화의 실패"에도 시선이 있어야**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 수 있다**

『민주노총 30년사』  
조직의 공식 역사서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현장과 사회운동 시각의 비판적 분석



#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전환점들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변화 과정

시기	전환 계기	변화 쟁점	결과/의미
1987	노동자 대투쟁	노동해방·현장권력 쟁취, 자주적 노조 급속 확산	민주노조운동의 탄생, 계급 주체 형성
1995	전노협→민주노총 전환	사회운동 노조 성격→ 합법 전국총연맹화 ("노동해방" → 사회개혁 중심)	조직 기반 확대, 급진성 후퇴
1997~98	총파업 → IMF 위기 노사정 합의 논란	사회적 대화 노선의 출현과 파열	조직 내 분열, 협의 기구 불신 고착
2000~04	민주노동당 창당 산별노조 전환	계급정치 실험과 구조 교섭 전략 시도	일시적 성과, 정파 갈등과 제도화 한계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변화 기회였으나 전략 부재, 비정규직 투쟁 고립 산별교섭 실패, 진보정당과 함께 야권연대로 경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2016~17	촛불혁명·정권교체	친노동 개혁 기대 vs. 민주노총의 전략 혼선	경사노위 참여 실패, 제도 개혁 미완
2020s~	플랫폼 노동·MZ세대 등장	기존 전통노조 전략에 대한 도전	조직문화 재구성과 포괄성 확대 계기…?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What's happened, happened)”, 테넷 Tenet (2020, 크리스토퍼 놀란 )

# '경로의존성'이라는 진단

**경로의존성** : 한 번 형성된 제도나 관행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현상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특정한 '역사적 경로'에 갇혀 변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어떤 역사적 요소들은 등장했다가 결국 계승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음

1985년 구로동맹파업(지역초기업노조와 정치적 노동자운동), 노동운동단체와 전노협(급진적 이념과 사회운동지향) 등

## 경로의존성으로 남은 요소들

① 기업별 노조 체제의 고착화

②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 조직

③ 기존 투쟁 방식의 반복

④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일관된 전략 부재

⑤ 정파 갈등과 내부 분열

# 몇 개의 개념 소개

##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

- 주로 노동조합을 통해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 정당은 노동조합과 제휴하거나 종속

## 정치적 노동자운동

- 정치단체(정당·정파)의 활동을 포함하며 정당이 우위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지도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 노조를 넘어 노동자 전체의 권리와 사회구조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일부를 자임하는 노조운동

## ‘노동자운동’(Workers Movement)

- 노동자(계급)의/에 의한 운동. 노동자라는 ‘주체(계급)’를 운동의 주체로 하는 여러 정치, 사회운동을 포함

## ‘노동운동’(Labor Movement)

- 노동에 대한 운동. 노동 문제 그 자체(임금·고용·노동조건 등)를 개선의 대상으로 보는 운동



1970, 전태일 열사 분신



1970년대, 토론하는 여성노동자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5. 광주항쟁

# 8·8 노동자 저항 운동

1985. 구로동 맹파업





1987. 7~9. 노동자대투쟁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원인별 분류



## 1987년 전후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연도	노조수	조합원수	조직률
1985	2,551	1,004,398	12.4
1986	2,675	1,035,890	12.3
1987.6	2,742	1,050,201	11.7
1987	4,103	1,267,457	13.8
1988	6,164	1,707,456	17.8
1989	7,883	1,932,415	18.6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위대함과 역설

## 1987년의 이중적 유산

-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
- 기업별 노조주의로 귀결 (미국의 1930년대, CIO와 비교)

## 1987년, 변화의 ‘가능성’

막 형성되던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지노협-전노협으로  
이어지던 운동 → 1987년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들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배경

- ① 경제적 조건 : 중화학 공업 성장과 3저 호황
- ② 노동자의 상황과 노동력 구성의 변화
- ③ 1970년대 노동운동의 유산
- ④ 정치적 민주화 투쟁과 결합

국 노 동 조 합 협 의 회

1990. 1. 22

단  
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 대의원대회

일시 199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연세대학교 대강당

진  
진





1991. 박창수 열사, 의문사와 시신탈취 사건

# 전노협 → 민주노총 전환

쟁점 1

일반적 통념: "민주노조 총단결의 실현"

분산된 민주노조 세력의 통합

전국 조직으로의 결집

조직적 발전과 확장

"민주노조진영의 총집결"

"운동 기초의 확립"

"조직체계의 완성"

— 민주노총 30년사

# '전노협 청산'과 사회운동적 성격의 약화

비판적 재해석

“민주노총 건설은 기존에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던 전노협으로부터의 변화이기도 했다”

## 무엇이 약화되었는가

① 이념적 급진성

② 투쟁의 전투성

③ 사회운동적 성격

④ 정치적 노동자운동과의 결합

## 제도권 편입의 시작

“민주노총은 출범 직후 김영삼 정권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 참여한다”

→ 김영삼 정부의 노동개혁과 시기적으로 조응

## 이념적 변화

전노협은 정치적·급진적 노동운동(노동해방) 강조  
민주노총은 합법적 제도 내 사회개혁 노선으로 전환

→ ILO공대위 이후 전노대('93)부터 노동운동단체들과 결합 종료

# 공식 역사가 묻지 않는 질문

민주노총 건설 당시 '**특수한**' 조건은 무엇이었나?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무엇이 상실되었는가?**

90년대 **장기 경제성장** : 늘어나는 일자리와 임금 수준

한국노총과 정부 전략 실패 →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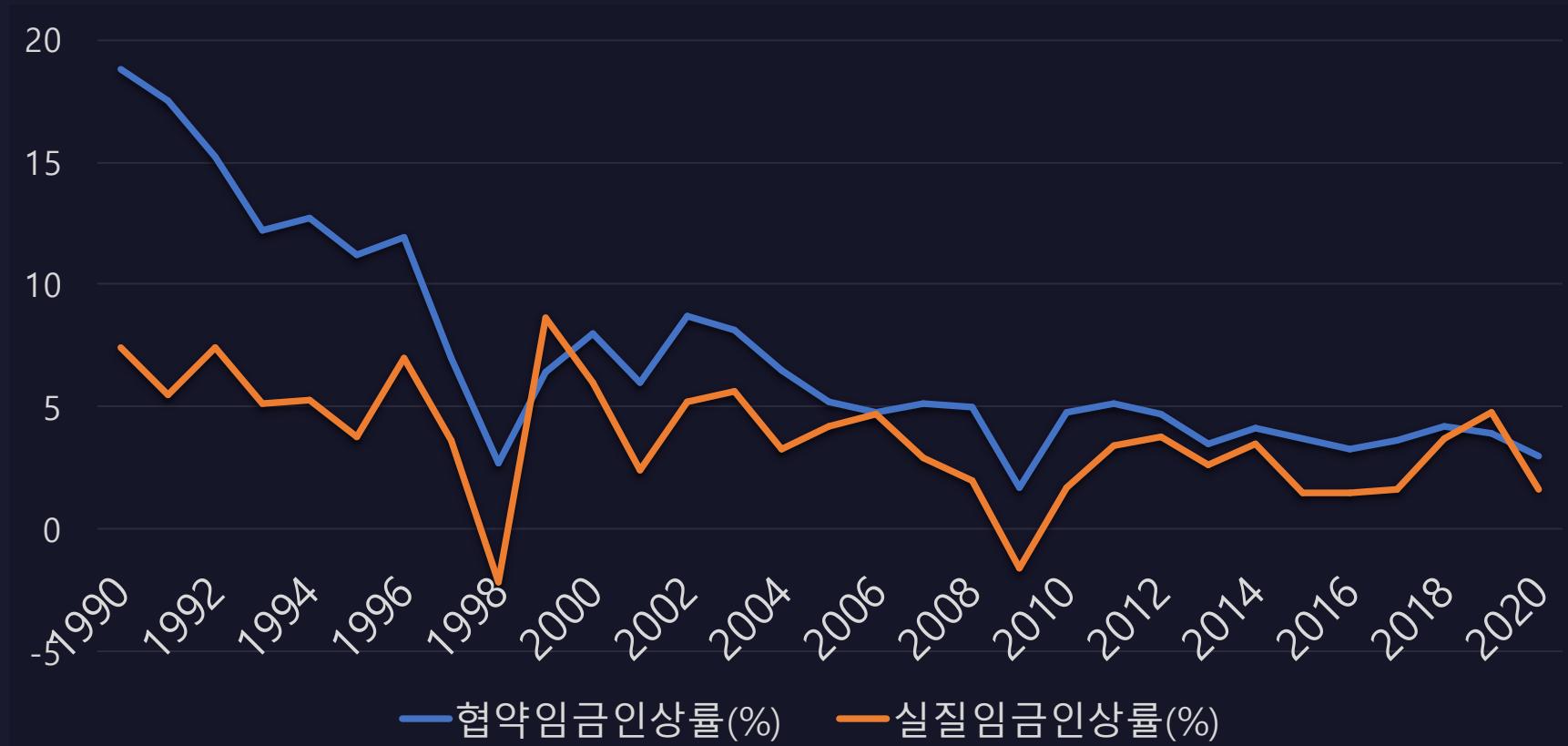
전노협 조직 기반 약화(정권의 노동탄압과 산업구조조정)

전노협이 지녔던 **사회변혁적 지향**은 왜 약화되었는가?

**정치적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은 왜 약화되었는가?

**각주구검(刻舟求劍)**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다. IMF 이전 법 제도로 돌리면 된다”고 답변했다(2021).

# 협약임금인상률, 실질임금인상률 추이



# 1996-97년 총파업: 신화

쟁점 2

일반적 통념: "신자유주의 저지의 모범적 사례"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

파견법 도입 저지

날치기 통과 법안 재개정

국제적으로 알려진 '반신자유주의' 투쟁

"민주노총은 건설 후 불과 1년여 만에 엄청난 규모의 총파업을 조직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 IMF 구제금융 공식 요

## 林부총리, 어젯밤 긴급회견



**경제회담** 김영상 대통령이 21일 저녁 레탕 청자치도차들을 참의대로 초청, 금융위기 타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本国부터 박대준 총재, 이희상 한나리당 후보, 김대중형, 김대중 국민회와 후보, 조순 한나리

# 1996-97년 총파업: 현실

비판적 재해석

## 1년 만에 무너진 성과

"1996~97년 총파업으로 저지한 듯 보였던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1년여 만에 재추진되었다."

### 1년만에 역전

"심지어 민주노총도 참여한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법이 개정됐다."

| 총파업으로 막아낸 것들이 민주노총 스스로 참여한 합의로 도입

### 98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

- 정리해고제 • 근로자파견제 • 탄력근로제 등

### 정부가 강행

-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방 등

# 공식 역사가 회피하는 질문들



왜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왜 위기 상황에서  
**일관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왜 '결과'에 대한 투쟁을 넘어  
**'원인'**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는가?

"**경제학**에 기초를 둔 현실 인식과 비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결과'(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넘어 '원인'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공식 역사는 '결과'에 대한 투쟁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한계'와 '실패'의 구조적 원인 분석은 생략



정리하고  
저지투쟁

# 노동시장 이중구조: 은폐된 실패

쟁점 3

치열했던 정리해고 반대투쟁,  
해고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는 **절반의 성공**이면서 동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 민주노총의 일반적 평가

"자본의 분할 전략에 맞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고 조직하여, 마침내 조합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

## 현실

대기업 정규직 → 고임금 실현  
중소·영세·특수고용 → 격차 확대

## 비판적 시각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은 민주노총 운동의 "커다란 실패"

"무엇보다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노동계급의 분할**을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밥을 짓던 그녀들이 어느순간 투쟁의 꽃이었다 희생 양이 되어, 밥먹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3년  
"그녀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가?"



불안한 노동과 상처에 관한 보고서

밥·꽃·양

###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 정리해고 저지를 위해 8월, 36일간 공장 점거 파업
- 사측은 1538명 정리해고 요구
- 파업 끝에 277명 정리해고로 축소했으나…
- 133명의 구내식당 여성 노동자들은 전원 정리해고-외주화

# "정규직 노동자들 편"이라는 인식

"공장을 돌아 보면 '정의당은 정규직 노동자들 편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작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의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정의당 전 후보

## 이것이 의미하는 것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인식

## 책의 진단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서 멀어진 모습"

진보정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촉발된 비정규직 투쟁

쟁점 3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외주화 확산 → 불법파견투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활발한 비정규직 투쟁

##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의 역설

정규직과 비교 가능하거나 따라 잡을 수 있는,  
“상용형 비정규직” 중심의 조직화와 투쟁으로 일부 성과 실현

## 논쟁

비정규직 철폐 vs. 비정규직 차별철폐

직접고용 정규직화 vs. 유연한 접근

“공정성” 담론 논란까지.

## 비판적 시각

조직화와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따라잡기” 모델  
그렇다면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도 성과가 있었지만,

산별노조(초기업교섭) 전략과 연계는 부족

# 산별노조 전환: 형식과 실질의 괴리

쟁점 4

## 형식적 전환의 실체

### 일반적 인식

2000년대 산별노조 전환 = 중요한 성과.

### 비판적 시각

"조직형태의 전환은 의미 있었으나  
산별교섭 구조, 산별 노사관계 구축은 실패"

①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나 교섭은 여전히 기업별

②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내부 반발과 조직 분열

③ 대기업 노조: 기업별 이익 극대화 선택

④ 2010년대 초반 대부분 한계 실감 → 전략 전환은 부재

### 그러나, 새로운 시도들도 진행

- 중소영세 업종-지역에서 초기업 교섭 확대
- 화물/건설/라이더 특수고용에서 새로운 시도
- 금속/보건/공공 등 산별노조의 새로운 전략 실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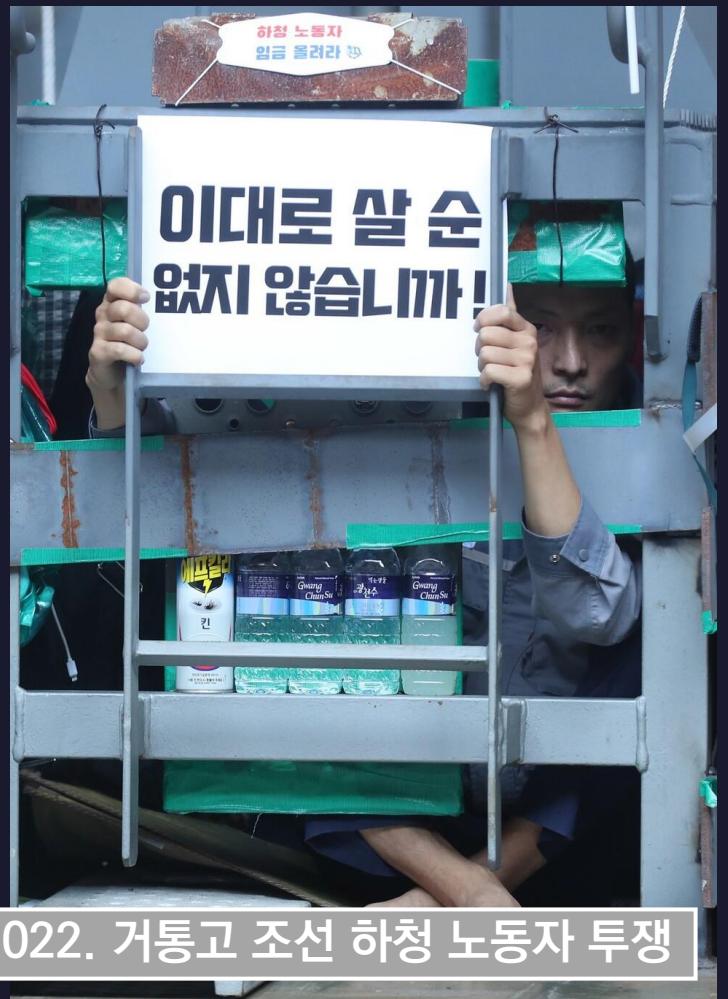
간단하게 살고

전국건설노동조합





국민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



2022. 거통고 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

# 사회적 대화: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

쟁점 5

1998년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결

2005년

노사정위 참여 안건  
대의원대회 상정, 폭력사태

2020년

코로나 노사정 합의  
부결, 위원장 사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탄탄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공식 역사: ‘당시 조건에서 최선의 대응 모색 노력’, ‘정부 측의 문제’ 등

비판적 시각: 내부 이해관계 분화와 조율 실패의 문제





# 문재인 정부 시기: "변화의 기회를 놓친 민주노총"

쟁점 6

## 공식 역사의 서술

"촛불항쟁 계승 표방했으나, 개혁 후퇴"  
→ 정부 측의 문제로 귀속

## 비판적 분석

민주노총의 무비판적 태도가 문제  
→ 내부 성찰의 부재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 →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민주노총의 실패이기도 함

“노동운동 역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지 못하고 '촛불 개혁 연합'의 일원이라고 생각”

### 비정규직 제로 공약

843만→900만 (+57만 증가)

### 최저임금 인상

고용 충격, 자동화 확대

### 전태일법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방치

[오피니언](#) [일자리](#) [노동](#) [안전과 건강](#) [매일노동](#)[▶ 종 정 치 국 헌 · 정 당](#)

##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제3당으로

▲ 조상기 기자 Ⓛ 등록 2004.04.15 22:10 ▲ 댓글 0

● ◉ 가 가



[총선특보] 업체락 뒤치락 대역전 드라마 정당지지  
13.1% 획득

16일 2시 15분, 13.1%를 얻은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며 민주당을 제치고 3당의 지위가 확정되자 선거상황실은 환호성으로 뒤덮었다. 이에 따라 '노회찬 어록'으로 유명한 노회찬 후보(8번)의 당선 도 확정됐다.

조상기

조상기 기자

▶ 로그인

NEWS  
구독 추천

정치

## 진보 정치, 언제까지 표 대신 후원금만 받고 말 텐가

국회 표 13.08%, 대선 10석으로 3당으로 확정된 민주노동당이 정당 지위를 확정되면서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치 활동을 벌인다. 꽃 봄피아 박연미다라는 꽃구단 함께 회의를 열고 후원금을 받고 이를비 중이했다.



권은희 기자 [조상기 기자](#)

등록 2020.06.17 08:03 | 조회 8,15

◀ 08:09

▶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 정치세력화의 좌절: 한 순환의 종료

쟁점 7

80's 중반~90's 초

정치적 노동자운동 성장

90년대 중반

정치적 노동자운동 해체

2000년~2004년

민주노동당 출범~국회의원 10명 당선

...

2008~2012년

민주노동당, 통진당 분열

2020년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논란

2025년

독자후보(권영국) 0.98%

민주노총 건설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라는 성격이 강해”였기에, 점차 조직 노동자 중심의 협소한 대표성에 갇힘

2010년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진보정당도 동참한 “반보수전선”의 결과, 위성정당으로 귀결

“1998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 운동도 한 순환이 끝난 것이다”

# ‘항쟁과 승리의 서사’가 침묵하는 것

“피와 땀으로 새겨온 투쟁의 기록” — 『민주노총 30년사』

## 전략적 실패의 침묵

투쟁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분석은 생략

## 내부 문제의 외부화

실패 원인을 주로 외부(정권, 자본)에서 찾고,  
내부의 전략적 오류에는 침묵

## 변화 필요성의 회석

투쟁의 정당성만 강조함으로써,  
투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 약화

## 비판적 성찰의 차단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서사는 방향성 비판을  
'배신'으로 느끼게 만듦

# 공식 역사에서 돌아볼 지점

민주노총 건설

전노협의 사회운동적 성격은 왜 약화되었는가?

96~97 총파업

왜 1년 만에 성과가 무너졌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민주노총은 '정규직 편'으로 인식되는가?

산별노조 전환

왜 형식적 전환에 그쳤는가?

사회적 대화

왜 내부 합의가 불가능한가?

문재인 정부

왜 사실상 무비판적으로 동조했는가?

정치세력화

왜 노동자계급 정치보다 민주노총의 정치가 되었는가?

공식 역사의 프레임을 넘어 이 질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7(금) | 06:46



## 채용 시장은 '한파'…냉랭한 청년 현실

경기 침체·고금리

→ 기업 채용 여력↓

생성형 AI 확산

→ 신입·초급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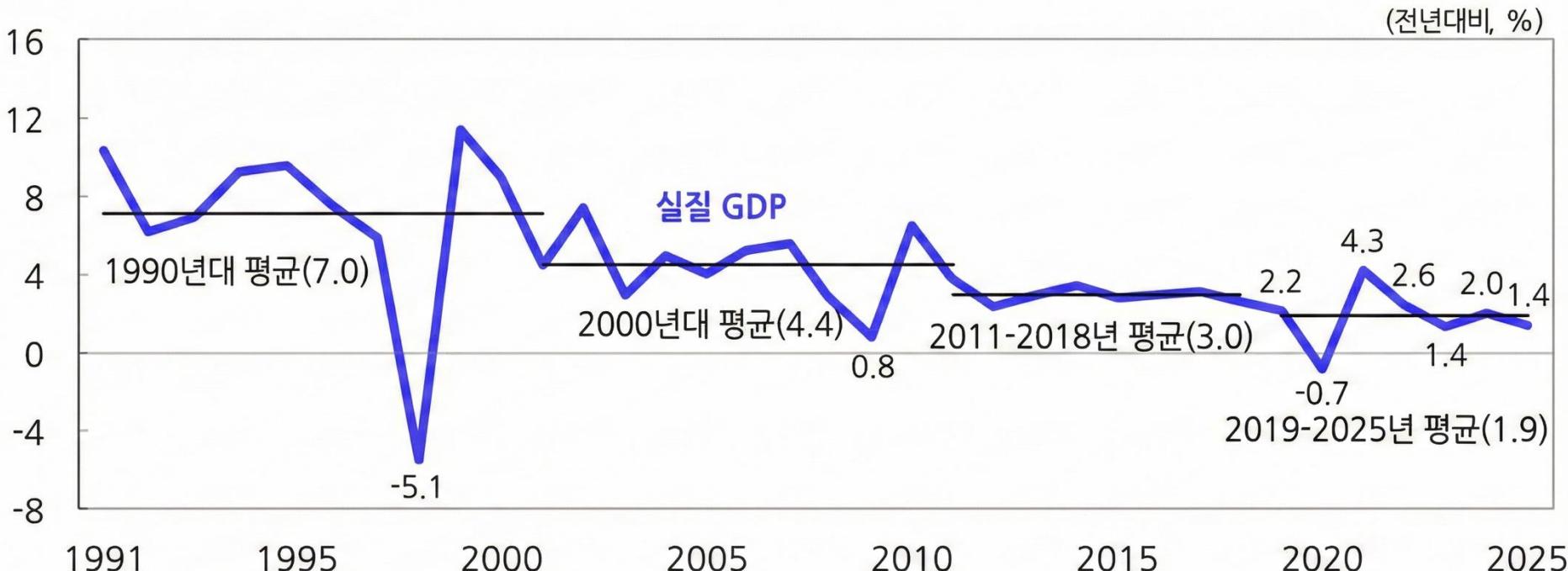
6

모닝와이드

사 회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2명 사망·2명 구조·5명 수색 중

##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가

이제까지 하던 대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까?

2010년대 이후 “양날개론” 즉,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기존 전략은 한계 봉착

## 노동자 삶의 변화

좁아지는 대기업-정규직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화…

## 외부 정세의 변화

트럼프-우크라이나전쟁 등 세계의 변화,  
저성장, 인구위기, AI 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We cannot solve our problems with the same thinking we used when we created them.”

문제를 만들었던 그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지역연대: 경로의존성을 깨는 출발점

## 형식적 산별전환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전노협(1990) → 민주노총(1995) → 산별전환(2000년대) → **산별교섭 실패(2010년대)** → 중소영세·비정규직·특수고용의 새로운 초기업 실험

## 주변부에서 시작된 산별운동의 가능성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 건설노조 적정임금제 / 금속 지역지부 업종별 초기업 교섭 / 비정규직 원하청 공동교섭

"**대기업 중심 산별교섭이 실패한 자리에서, 주변부 초기업 투쟁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 왜 지역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 현장 밀착 + 초기업 역량의 결합
- 기업별 노조: 사측 대응력에 종속
- 지역지부: 유연한 대응, 상호 지원 네트워크

### 현장 간부의 과제

- 우리 사업장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확장
- 신규지회·소수노조·비정규직 투쟁에 연대
- 초기업적 노동조건 형성으로 격차 축소

"**전노협이 남긴 지역연대의 전통, 비정규직·특수고용 투쟁의 교훈을 지역에서 다시 살리는 것**"

# 전노협의 유산, 그리고 산별노조 지역지부의 역할

## 전노협 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

- "노동해방과 인간해방",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
- 지역적 공동투쟁으로 노동자 간 격차 축소 → 계급적 단결

## 지역연대의 역사적 뿌리

- 1985년 구로동맹파업 –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지역연대파업
- 사업장을 넘은 지역 차원 동맹파업으로 각개격파 탄압 극복

## 오늘날 지역 초기업 노조 운동의 의미

- 구로동맹파업 → 지노협·전노협 → 금속노조 지역지부로 계승
- "중소·영세, 특수고용·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지역 기반 운동이 중요"
-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 대기업노조가 성장하던 시기보다는 구로동맹파업~지노협 운동 조건에 가까워짐

"산별노조의 실질은 기업 단위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연대에서 시작된다"

# 성찰 없는 역사의 위험

"노동운동의 변화는 가능할까?"

"더 큰 문제는 노동운동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거의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항쟁과 승리의 서사

한계 직시를 어렵게 만듦



## 성찰의 역사

변화를 위한 전제 조건

성찰 없는 역사는 반복될 뿐

#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현장 간부로서, 우리 스스로를 역사에 비추어 볼 여러가지 질문들

우리 노조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조합원'만을 대변하고 있는가?

산별노조의 '실질적' 기능은 무엇인가?

투쟁의 '성과'만 기억하고 '실패'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실패'의 원인까지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40년, 30년, 20년 전과 달라진 지금의 조건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있는가?

우리의 전략은 2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전환점과 과제들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변화 과정

시기	전환 계기	변화 쟁점	결과/의미
1987	노동자 대투쟁	노동해방·현장권력 쟁취, 자주적 노조 급속 확산	민주노조운동의 탄생, 계급 주체 형성
1995	전노협→민주노총 전환	사회운동 노조 성격 → 합법 전국총연맹화 ("노동해방" → 사회개혁 중심)	조직 기반 확대, 급진성 후퇴
1997~98	총파업 → IMF 위기 노사정 합의 논란	사회적 대화 노선의 출현과 파열	조직 내 분열, 협의 기구 불신 고착
2000~04	민주노동당 창당 산별노조 전환	계급정치 실험과 구조 교섭 전략 시도	일시적 성과, 정파 갈등과 제도화 한계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변화 기회였으나 전략 부재, 비정규직 투쟁 고립 산별교섭 실패, 진보정당과 함께 야권연대로 경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2016~17	촛불혁명·정권교체	친노동 개혁 기대 vs. 민주노총의 전략 혼선	경사노위 참여 실패, 제도 개혁 미완
2020s~	플랫폼 노동·MZ세대 등장	기존 전통노조 전략에 대한 도전	조직문화 재구성과 포괄성 확대 계기…?



"후회에 가득차.. 훌로 늙어가겠나?(Filled with regret.. Waiting to die alone?)“  
– 인셉션 Inception (2010, 크리스토퍼 놀란 )



- 사이토 : “우리의 약속을 지키도록 설득하기 위해?”
- 코브 : “그래요, 믿음의 도약을 해봐요(To take a leap of faith), 돌아가요, 우리가 다시 함께 젊어질 수 있도록..”

## 결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쟁과 승리의 서사에만 머물지 말고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는  
성찰의 역사가 필요하다

---

“역사는 교훈을 주기는 하지만 쉬운 답은 없다.  
노동자운동이 선 자리에서 다른 미래를 위해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위해 바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 6장.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변화할 수 있는가’

참고: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민주노총 30년사』